



완벽한 보안 시스템은
지식재산권 제도여야 한다



보안 방어벽 시스템은 지식재산권 제도

특허는 개발한 기술을 공개하는 대신 독점적 권리를 주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특허성 있는 첨단기술을 제3자에게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벽 시스템은 임직원의 보안교육 및 보안 시스템 구축에 선행하여 특허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개발된 기술이 특허 출원되고 특허등록 되어서 국가에서 이를 보호해주는 철저한 시스템 및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동안의 특허 활성화 교육으로 세계적인 특허출원 국가로 성장했지만 독점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이나 사회적 풍토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여 국내기업들이 국내 특허 무용론을 내세우며 특허출원 정책을 꺼리고 있다. 급기야 최근 외국회사들도 한국의 시장성이 밝지 못하다고 하여 한국의 출원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오고 있다.

특허에서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개발, 대중가요, 기타 21세기형 지식재산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남의 것을 훔쳐야 돈을 버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풍조는 처음은 누구나 쉽게 모방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후진국형 시기에는 가능한 일이지만 새롭게 창의성을 조성하여 일류국가로 가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 제도를 강화하여 남의 것을 훔쳐서 돈을 벌겠다는 행위는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국내 경쟁업체 간 분쟁 등도 국민적인 저항감 없이 서로 간 싸울 수 있는 풍토가 되어야 지식재산권 제도가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의의 진정한 기술개발이 유도되고 뒤떨어진 소프트웨어 개발 등 창의력을 유발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된다. 그러므로 지식재산에 관한 분쟁을 정확하게 심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인적 육성이 필요하다. 특허심판을 담당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이공계의 지식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서 지식재산의 침해여부를 정확하게 심판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로스쿨 제도가 정착되면 판검사 임용은 경력있는 변호사에서 채용되듯이 특허관련 소송 판검사는 특허 실무가 있는 특허관련 변호사를 임명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온정주의 보호벽은 궁극적으로 공동파멸

사자는 자기 새끼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살아남는 자만 키운다는 독특한 지식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 맹수의 왕이다. 맹수의 왕다운 교육철학이다. 적당히 하면 되겠지라는 사고는 궁극적으로 최고가 될 수 없고, 적당히 보여주는 사회는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 남의 것을 적당히 훔쳐서 부자가 되고 조용히 앉아있다 남의 것을 도용하는 사회는 궁극적으로 초일류 국가가 될 수 없다. 그러한 의식

수천억 원대의 가치로 평가되는 첨단기술이 경쟁회사에게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관련자를 구속 수사하고 보안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소리가 요란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의 속 뜻은 사전에 좋은 방어벽 시스템을 잘 갖추려는 뜻이다. 그러면 첨단기술을 잘 보호하고 문제가 발생 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어벽 시스템은 무엇일까?



구조는 창의력을 유발시키는 저해 요인이 되어서 발전이 없다. 그러므로 21세기 지식재산의 시대에 맞는 국가적인 시스템과 국민정서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민족은 타민족보다 창의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쉽게 일류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온정주의에 입각한 국민정서는 농경사회에서 공동체의 힘을 이용한 사회구조에서는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개인의 창의력이 요구되는 21세기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에서는 사회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 축구와 프리미어 리그의 현실에서 비교하여 설명하겠다. 한국 축구하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을 떠올린다. 히딩크는 학연·지연 등 어떠한 요소를 감안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간 경쟁을 유발, 개인의 자질이 올라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의 자질을 철저히 분석하여 매 게임 마법과 같은 용병술로 세계 4강의 위업을 달성했다.

그러나 국내감독들은 학연·지연 등 무언가에 의해서 팀이 조정되고 개인의 기량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팀의 영원한 색깔인 “골 결정력 부족과 창의적인 플레이의 부족”이 급기야 32년 만에 공한증을 날려버리는 졸전의 역사를 만들었다.

눈을 돌려서 프리미어 리그의 경기를 보자. 분명 그들은 현란한 개인기를 바탕으로 하는 짧은 패스와 돌파력 및 공간창출 능력으로 창의적인 골을 만들어낸다. 왜 그들은 그러한 현란한 개인기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게임을 만들어 나가는 능력을 습득하였을까? 그들은 분명 어떠한 보호막 없이 개인의 능력에 의한 생존경쟁에 따라 자라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분명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시스템이나 국민정서도 철저한 선의의 개발경쟁을 통한 생존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을 때 모두 다 살아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정확하게 심판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과 분쟁을 통한 사례가 많이 모일 때 초창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류국가로 가는 통과의로 생각하고 아픔을 이겨내고 깨어나야만이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지, 온정의 보호벽은 모두를 공멸하게 만들 것이다.

특허가 세계화되어야 로열티 흑자 국가

그동안 많은 국제적인 회사와 특허 분쟁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특허의 필요성이었다. 특허 분쟁에서 가장 필요한 특허는 분쟁상대가 정확하게 쓰고 있는 특허다. 이러한 특허를 만들려면 국제적인 표준특허를 만들거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다른 경쟁자들도 그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도록 하거나, 아니면 최초의 개발자가 되어서 그러한 방법을 세계적인 장비업체를 이용하여 세계적으로 쓰게 만들면 가능하게 된다.

먼저 세계적인 표준이 될만한 특허를 만들려면 모든 면에서 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기술만 좋다고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의 국제적인 역량이나 대량 생산을 하여 누구나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이 표준특허는 쉽게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기술력이 많은 부분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해 있거나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 있기 때문에 향후 가능할 수 있다.

누구나 쓸 수 밖에 없는 기술개발은 원천적인 연구개발에서 쉽게 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 경우 기업이 기초분야에 투자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원천특허의 발굴은 힘이 든다. 보다 긴 안목을 갖고 단기간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국책 연구소나 대학에서 이러한 원천특허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종래의 기술을 개량하면서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특허가 종래기술을 개량하면서 발생하나 공교롭게도 세계화된 기술은 별로 없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 기술을 홍보하여 세계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연구개발되는 기술 또한 생명력이 있어서 성장하고 쇠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어느 시점에는 대체되는 기술이 나와서 쇠퇴의 길을 가기 때문에 혼자만 사용하여 독점하겠다는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기술을 홍보하여 세계화시켜 로열티를 받는 방법 또한 매우 필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

마지막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세계적인 장비회사를 통하여 모두 다 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장비업체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얻을 수 있지만 장비업체가 특허권 지분을 가져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분율에 따른 특허료를 받을 수 있다.

특허 시스템이 완벽하면 스파이를 역으로 활용

로열티를 가장 쉽게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전제 조건은 특허 시스템이 완벽하고 침해적발 등 고도의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방법이다.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 지난 신문에 소개했던 것처럼 세계적인 장비업체들은 선발회사들의 기술을 빼내어 후발업체에 주면서 자기의 장비를 팔려고 한다. 그러는 과정 중에서 발생한 일을 역으로 이용하면 된다. 빼낸 기술이 특허로 잘 만들어져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계속 상대의 동태를 살피고 있다가 제품이 양산되어 돈을 많이 벌 시점이 되면 등록된 특허로 공격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기술을 빼낸 사람은 역적이 될 수 있거나 영웅이 될 수 있다. 특허 시스템이나 특허팀이 잘못하여 개발된 기술이 특허화가 안되었다면 기술을 빼낸 사람은 역적이 될 수 있지만, 특허 시스템이 잘되었고 그물망처럼 특허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는데 기술을 빼내어서 세계적으로 쓰게 했다면 역으로 영웅이다. 역적과 영웅이 기술을 빼내간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특허 시스템이나 각 회사의 특허팀 실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다.

대학시절 매우 재미있게 감상한 영화가 “나를 사랑한 스파이”였다. 로저무어와 바바라바흐가 타고 가던 차가 물속에 빠졌는데 잠수함이 되어서 추격하던 헬리콥터를 추락시키는 장면이 뇌리 속에 남아있는 007시리즈 이야기이지만, 사랑한 사람이 스파이였다는 내용을 특허 전쟁에 쓰면 멋진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된다.

제품을 먼저 개발하여 관련된 기술을 철저히 특허 화한 다음 경쟁업체들이 탐이 나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허허실실 작전으로 장비업체를 이용, 경쟁업체들에게 기술이 들어가게 하여 수 많은 투자를 하게 하고 양산화를 성공시킨 다음 특허 공격을 하는 것이다. 더욱 크게 성공하려면 장비업체가 세계적인 회사일 때 모든 기술이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어서 더욱 좋다.

신문에 떠들썩하게 장식되는 산업 스파이의 문제를 역으로 활용하면 멋진 특허정책이 된다. 특허가 잘되었다면 산업 스파이들은 기술을 세계화시켜 엄청난 로열티를 받아

낼 수 있는 기쁨을 만들어준 영웅이 된다. 산업 스파이들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면서 국민적 의식이 지식재산을 흠꼈을 때 응징을 가해야 한다는 공감대의 형성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은 외양간을 완벽하게 만들면 도둑 잡는다는 속담이다. 하루 빨리 국가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도둑 잡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국민 모두가 도둑을 잡아야 한다는 정서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들이 로스쿨에 많이 들어가서 졸업 후, 특허심판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 또한 이공계 기술과 법률로 무장된 인재가 배출되어서 선진국식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이 철저히 심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성되어야만이 경쟁 기업은 선의의 기술개발 경쟁이 선행되어서 촉진되고, 특허관련 산업이 발달되며, 외국회사들에서 로열티도 받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우리의 외양간부터 허술한데 소를 잃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도둑도 잡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작금의 산업 스파이 문제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최적의 보안 시스템인 국가의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철저히 만들어 지식재산 침해 시 철저히 심판하여 대가를 지불하게 판정했을 때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 될 것이다. 지식재산 침해판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침해심판 판검사 및 변호사를 이공계 분야에서 육성시키고, 국민적인 정서 수준도 지식재산 시대에 걸맞게 흠치는 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다수로 형성되고, 변화하는 특허 선진국 흐름에 동참하여 받는 로열티가 많은 강대국이 되어야 21세기에 살아남는 민족이 될 것이다. **한국발명진흥회**

